



70th
Fifty Fathoms
70th anniversary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Fifty Fathoms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기념

제1장

1953년, 블랑팡이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 피프티 패덤즈를 선보였습니다.
심해를 누비는 아이콘 워치가 탄생한 지 50년이 흐른 2003년, 블랑팡은 5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을 제작했습니다. 각각 50피스씩 총 3시리즈로 출시된 이 에디션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피프티 패덤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타임피스입니다.
최초의 피프티 패덤즈 출시로부터 70년, 그리고 50주년 기념 에디션 출시 후 20년이 지난 지금,
블랑팡이 새로운 모델과 함께 또 한 번의 기념비적인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직경 42mm로, 각각 70피스씩 총 세 가지 리미티드 시리즈로 구성된 워치는
2023년 1월 블랑팡 웹사이트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블랑팡 CEO로 새로 임명된 마크 A. 하이에크(Marc A. Hayek)는 브랜드 아카이브에 잠들어 있는 피프티 패덤즈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열렬한 스쿠버 다이버였던 그는 탁월한 워치의 매력에 곧 빠져들었고 이 모델에 새로운 삶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의 부활은 그가 블랑팡에 합류하자마자 착수한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매뉴팩처가 거의 클래식 워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랑팡의 고객들이 이 스포츠 모델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려면 먼저 “물에서 테스트”해야 했습니다. 2003년 피프티 패덤즈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블랑팡은 각각 50피스씩 총 3시리즈로 구성된 리미티드 에디션을 통해 최초의 현대적인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 기념 모델은 1953년의 디자인 코드를 21세기 스타일로 재해석해 선보입니다. 오리지널 워치의 특징인 초대형 숫자와 마킹이 자리한 블랙 다이얼, 다이빙용으로 설계된 시간 측정 장치의 특성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는 이제 50패덤(약 91미터)이 아닌, 약 300미터의 방수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에는 4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트윈 배럴이 장착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특징은 1950년대의 에폭시 베젤 인레이가 곱힘 방지 동형 사파이어 인서트로 대체되었다는 점입니다.

© Simon Pierce



© Simon Pierce



50주년 기념 에디션의 놀라운 성공으로 인해 블랑팡은 피프티 패덤즈를 워치 컬렉션에 포함시켜야 함을 확신했습니다. 마크 A. 하이에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시대를 통해, 피프티 패덤즈를 제작하여 바다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준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chter)의 공로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블랑팡의 첫 번째 해양 보존 이니셔티브는 세계 최대의 스쿠버 다이빙 교육 기관인 PADI와 협력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다이빙 위치의 기준을 세운 피프티 패덤즈의 70주년을 기념하는 연중 행사를 시작하기 위해, 매뉴팩처는 2003년 “르네상스” 모델을 기념하는 새로운 타임피스를 공개합니다. 이번에는 각각 70피스로 구성된 세 시리즈가 다시 제작됩니다. 각 시리즈는 EMEA, 아시아 태평양, 미주 등 세계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이얼에 I에서 III까지의 숫자가 장식됩니다.

선버스트 모티프의 블랙 다이얼은 빈티지 감성의 빛을 발하는 핸즈와 블록형 아워 마커가 특징입니다. 동형 사파이어 인레이를 장착한 단방향 베젤의 시계 케이스는 폴리싱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직경은 42mm입니다. 현대 피프티 패덤즈 모델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독점적인 사이즈입니다. 일반 모델은 45mm이며 피프티 패덤즈의 리미티드 에디션은 보통 40mm 케이스로 출시됩니다.





블랑팡은 42mm의 새로운 직경을 통해 1953년 모델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칼리버 1315의 탁월한 장점을 집중적으로 즐기고자 하는 피프티 패덤즈 애호가들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극도의 견고함으로 유명한 이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는 2007년 출시 이후 블랑팡 매뉴팩처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3배럴 구조를 기반으로 5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여 착용자에게 최적의 편의성을 보장합니다.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은 다이빙 세계의 필수 기준인 항자성을 보장합니다. 최초의 피프티 패덤즈가 탄생했을 때는 무브먼트가 장착된 연철 케이스를 통해 항자성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약 15년 전 실리콘을 도입하여 이러한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블랑팡은 다이빙 워치 소유자가 무브먼트의 복잡하고 정밀한 작동 방식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감 처리는 하이엔드 워치 메이커 타임피스사의 명성을 증명합니다.



“Fifty Fathoms 70th” 로고가 새겨진 기념 에디션의 로터는 그 상징성에 따라 플래티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원함을 상징하는 이 소재는 스위스의 결혼기념일 70주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의 피프티 패덤즈에 대한 또 다른 찬사를 담아낸 로터는 1950년대에 로터의 유연성을 높이고 충격 저항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 기술적 트릭인 오프닝이 특징입니다.

2023년의 첫 번째 기념 워치인 42mm 피프티 패덤즈에는 블랙 YTT 나토 스트랩이 장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나토 스트랩의 특징은 바다에서 회수한 어망의 재활용 가능한 실로 100% 재활용되어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블랑팡의 모든 나토 스트랩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EMEA, 아시아 태평양 및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70피스씩 총 3시리즈로 구성된 워치는 2023년 1월 블랑팡 웹사이트에서만 사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 소개

1953년에 출시된 피프티 패덤즈는 최초의 모던 다이버 워치입니다. 한 다이버가 수중 탐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이 시계는 다이빙 선구자들과 최정에 해병대가 애호하는 전문 시간 계측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방수 기능, 견고한 이중 밀폐 크라운,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야광 시각 표시와 대비되는 다크 다이얼, 한 방향 회전 베젤 및 항자성 보호 기능을 갖춘 피프티 패덤즈는 수중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다이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를 전형적인 다이버 워치로 만든 이러한 주요 시그니처 요소들은 여전히 시계 산업에서 다이버 시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기본 사항으로 정착했습니다. 과거를 증언하는 동시에 미래를 확고히 바라보는 현대적인 피프티

패덤즈 모델들은 견고함과 신뢰성으로 유명한 현대적인 무브먼트를 갖추고 있으며, 다이빙 분야에 대한 블랑팡의 오랜 경험과 위험성, 긴급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수많은 기술 혁신을 자랑합니다.

피프티 패덤즈는 스쿠버 다이빙의 발전과 해양 세계의 발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블랑팡은 이를 기반으로 지난 70년 동안 해양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는 해양 보존에 대한 블랑팡의 헌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헌사입니다.

THERE IS ETERNITY
IN EVERY BLANCPAIN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